

[보도자료] 쿠팡, 안동시와 MOU 체결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도와”

2025. 9. 18.



쿠팡이 안동시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 MOU를 체결했다.

■ 착한상점 기획전 통해 안동 소상공인 제품 판매 지원

2025. 09. 18. 서울 — 쿠팡이 안동시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5시, 쿠팡 본사 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안동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쿠팡은 안동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사 상생기획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안동시 소상공인 제품 상생기획전’을 운영한다. 착한상점은 전국 중소기업인과 농수축산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상설기획관으로, 2022년 8월 론칭 이후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안동시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쿠팡과 안동시는 온라인 입점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입점 업체의 제품을 모아 상생기획전을 통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권기창 안동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 김형동 국회의원

앞서 쿠팡은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100톤을 매입해 가격 하락과 판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쿠팡의 여행 서비스 ‘쿠팡 트래블’ 내에 ‘안동 테마관’을 개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쿠팡의 안동 상생지원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안동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 권기창 시장은 “안동시는 올초 초대형 산불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져왔지만,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모여 안동은 점점 제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상생업무 협약은 안동 소상공인들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안동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